소괄호 내의 말은 플레이어가 아닌 다른 등장묘물의 말입니다.

중등토끼

* 방학이라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. (지금 집에 퍼질러있지? 우리 같이 시ㄱ, 아니 깡총랜드로 떠나자!) 뭔가 위험한 곳으로 떠날 뻔한 것 같지만, 깡총랜드라니! 깡총랜드는 정말 최고야! 그런데 어디서 모이는 거지? (다들 다른 역에서 출발하니까, 그냥 맨 앞칸에서 모이자구! <전화 끊어짐>) 야……야! 그냥 깡총랜드 역에서 모이면 될 것을…… 이렇게 된 이상 1-1로 향한다!
* 깡총랜드에 도착했다! (뭐 먼저 탈지 생각한 거 있어?) 없는데……롤러코스터? (그거 말고, 우선은 폭풍라이드를 타자!) (폭푸웅? 유일한 폭풍은 시공뿐……읍읍!)---------즐거운 시간이었다!

잡상토끼

* 움직이는 다이소. 듣고 있으면 참신하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모두 도산한다는 착각이 들게 하는, 클리셰로 가득한 세일즈 멘트가 포인트. 그런데 그걸 왜 나에게 들이대는 거야?
* Player In-game Text a: 내게……내게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아아아앗!!!
* Player In-game Text b: 얼마죠? (사딸라……아니 사천원!)

전도토끼

* 도대체 무슨 마가 끼인 것일까? 지하철에서 전도하기라니, 설마 어디든 가서 전도하라는 것을 그대로 해석한 것인지? 이러면 역효과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? 그리고, 도대체 카롯칩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법석이지?
* (예수천국, 불신지옥! 지옥에는 당근은 하나도 없고 불타는 가시덤불만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공간입니다!)

할머니 토끼

* 오늘은 엄마랑 같이 할머니 집에 가는 길! 엄마가 반찬을 만들었어! 그런데……할머니가 친구집에 놀러 나가셨다가 같은 지하철에 타셨대! 어쩌지? (할머니 맨 앞칸에 계시다니까 이 반찬 전해드리고, 할머니랑 같이 있으렴. 할 수 있지?) 응! 할 수 있쓰요!
* 할모니! 안녕하세요! (응~우리 xx, 어쩌다 이까지 왔누?) 엄마가 반찬 갖다드리랬어여!

대학토끼

-(이것은 출석점수를 위한 투쟁이다. 난 그저 전진한다.)

-maybe: (수업이라는 형리가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고, 나는 그저 지하철 속에서 오들오들 떨 뿐……)

-(나는 밭이 아닌데, 왜 교수님은 씨를 뿌리실까? 하하하하핳하하하하핳하핳) 플레이어가 사용할 여지 있음-이 말 하면서 대학토끼 떠올리기

-(전화기를 빌려달라고?)응! 엄마가 안보여~<울먹거린다>(여기 앉아서 전화하렴!)<자리를 양보한다>(엄마 전화번호가 뭐야?)모르게써……<주인공의 가방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>(기다려봐……여보세요? 아 여기 따님/아드님 이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서, 지금 n-2칸에 있거든요…… 지금 바꿔드릴게요!)